# 사과

**사과**(沙果·砂果, Apple)는 장미목 장미과의 **사과나무**의 열매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재배되는 과일 품종 가운데 하나이다. 사전적으로 **평과**(苹果)라고도 한다.

나무는 높이 5~12미터에 이르는 작은 낙엽수이며, 넓고 밀집된 잔가지가 많은 수관을 가진다. 잎은 번갈아가며 배열된 모양의 단순한 타원형으로 끝은 날카롭고 톱니모양의 모서리, 가냘프고 솜털이 나 있는 하단 부분, 5~12센티미터 길이와 3~6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의 잎꼭지의 특징을 가진다. 꽃은 잎과 함께 봄에 나는데 꽃 색깔은 흰색이며 처음에는 엷은 핑크색을 띠기도 한다. 직경은 2.5~3.5센티미터이며 꽃잎은 다섯 개이다. 열매는 가을에 익는데 보통 지름이 5~9센티미터이다. 드물지만 15센티미터에 이르기도 한다. 씨앗에는 미량의 사이안화물이 함유되어 있다. 과자(사과파이), 샐러드 등의 재료로 쓰이고 날로 먹는다.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700여 종이 되지만, 한국에서 유실수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10여 종이다. 사과의 품종은 수확기에 따라 조생종·중생종·만생종으로 나뉘고, 색깔에 따라 홍색사과·황색사과·녹색사과로 구분한다. 현재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에는 스타킹·골든딜리셔스·축 등이 있고, 근래에는 조나골드·후지 등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널리 재배되는 사과가 들어온 것은 근대 이후로 1900년 초반에도 사과는 널리 재배되지 않았다. [1] 대구경북지방의 사과는 1899년 선교사로 왔던 우드브릿지 존슨이 그의 사택에 심은 72그루의 사과나무로부터 널리 퍼졌다. [2]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사과와 배 등 과일을 즐겨 먹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을 52%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네덜란드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규약을 참고하십시오. Wikipedia®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